

## 2002년 겨울농민대학 성황리에 마쳐.....

농민의 영농교육을 선도해온 2002년도 겨울농민대학이 1월28일(월)부터 2월2일(토)까지 본회 농업기술진흥관에서 6개학과 173명의 농업인 및 관계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친환경·고품질위주의 농산물 생산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농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려움에 처한 우리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 개척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 및 수업진행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농민대학에서는 각 교과 과정별로 토론식 위주의 강의 진행과 현장견

학을 통해 선도농업인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분이나 귀농을 희망하는 수강생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본회에서는 보다 내실있고 교육참가자에게 도움되는 농민대학 개최를 위하여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73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5지선다형 및 주관식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의있게 응답을 한 133명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강생 일반사항은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전체의 81%인 108명, 학력수준은 초대졸이상이 전체의 40%인 54명을 차지하고

있어 본 협회에서 주최한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의 학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 수강생의 관심있는 분야로는 도·농 녹색교류(29%), 수도작(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참여동기는 친환경·고품질 농업기술습득(53%)과 새로운 소득작목선택(24%)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만족한다(13%), 만족한다(47%),

응답율이 전체의 60%인 80명이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강자는 전체인 3%인 4명이 응답하여 그 비중이

미미하였다. 2002년 겨울농민대학 개최와 관련하여 적당한 교육기간을 설문조사한 결과 2박3일 혹은 3박4일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0%와 21%인 81명과 28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본회는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참신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기술교육의 산실이자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전문화되고 우수한 농업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㉞



글-김진태 기자